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올해 상반기 교역액 21.2% 증가

-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교역액은 21.2% 증가한 3조 6,747억 달러(한화 약 5,232조 원)이며, 이 중 수출은 17.6% 증가한 2조 1,253억 달러(약 3,026억 원), 수입은 26.6% 증가한 1조 5,494억 달러(약 2,206조 원)를 기록

- (국가·지역별) 對한국(47.7%), 아프리카(24.0%), 아세안(22.5%), 라틴아메리카(20.3%), 일본(17.8%) 등 국가 및 지역간 교역액은 대폭 증가

구분	수출입		수출		수입	
국가(지역)	금액(억 달러)	증감률(%)	금액(억 달러)	증감률(%)	금액(억 달러)	증감률(%)
일대일로	18,712	19.0	10,763	17.9	7,949	20.5
아세안	6,261	22.5	3,962	22.9	2,299	22.0
EU	4,479	14.2	3,123	16.8	1,356	8.7
미국	2,891	0.0	2,159	0.2	732	△0.8
한국	2,313	47.7	927	31.0	1,386	61.5
일본	1,791	17.8	832	7.1	959	28.9
라틴아메리카	3,071	20.3	1,594	12.8	1,477	29.6
아프리카	2,035	24.0	1,300	26.2	735	20.3
전체 교역액	36,747	21.2	21,253	17.6	15,494	26.6

- (수출) 집적회로(96.1%), 자동차(53.9%), 컴퓨터 및 주변기기(41.3%), 플라스틱 제품(10.3%), 휴대폰(9.2%) 등 주요 품목 수출은 모두 증가

순위	품목명	수출(억 달러)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억 달러)	증감률(%)
1	집적회로	1,773	96.1	6	플라스틱 제품	577	10.3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81	41.3	7	휴대폰	543	9.2
3	자동차	918	53.9	8	농산물	530	7.4
4	방직실 및 직물	730	3.5	9	가전제품	520	6.1
5	의류 및 부자재	729.6	△0.7	10	자동차 부품	513	7.6

- (수입) 천연가스(△5.3%)를 제외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78.9%), 집적회로(55.8%), 동광석 및 정광(36.8%), 미단조 동 및 동재(29.5%) 등 주요 품목 수입은 대폭 증가

순위	품목명	수입(억 달러)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억 달러)	증감률(%)
1	집적회로	2,980	55.8	6	동광석 및 정광	529	36.8
2	원유	1,510	1.8	7	미단조 동 및 동재	332	29.5
3	농산물	1,108	12.5	8	곡물	303	14.5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883	78.9	9	천연가스	255	△5.3
5	철광석 및 정광	639	11.4	10	의약품 및 의약품	244	3.0

자료원 : 해관총서

2 상반기 외자기업 4,800개 사, 對중국 투자 확대

-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한 3만 1,617개사를 기록했으며, 실제 외자 유치액은 4,021억 위안(한화 약 85조 원)으로 집계됨
-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기존 외자기업 4,800개사가 추가 투자를 실시
- 외자 유치 구조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외자 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3.2% 증가했으며 전체 외자 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4%로 확대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서비스업의 외자 유치 비중은 57.0%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연구개발(R&D)·디자인 서비스업(82.0%),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서비스업(57.1%),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52.0%)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3 상반기 냉방가전 수출 실적 양호

- 최근에는 신산양(新三样,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 제품) 뿐만 아니라 라오산양(老三样, 휴대폰·컴퓨터·가전제품)의 수출도 증가하며 중국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함
- 해관총서에 따르면 상반기 가전제품 수출은 3,610억 위안(한화 약 76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TV 수출은 500억 위안(약 10.5조 원), 냉장고와 청소기 수출은 각각 300억 위안(약 6.3조 원)을 상회
- 특히 냉방가전(에어컨·선풍기·냉장고 등) 수출은 1,079억 위안(약 23조 원)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시장은 EU, 동남아 지역으로 나타남. 이 중 對EU 에어컨 수출은 43.2% 증가한 37억 6,000만 달러(5.3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가전제품 수출에서 중국 자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2% 증가. 특히 중국 브랜드 TV, 냉장고, 세탁기의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자료원 : 중국신문망

4 올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업 투자 급증

- 중국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무원은 ‘국민건강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BCI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방침을 제시
 - NeuroXess(脑虎科技)의 이식형 BCI 시스템은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Gestala(格式塔科技)의 슈퍼팩토리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는 등 주요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가 빠르게 추진
 - 올해 다수 기업의 침습형·반침습형 BCI 제품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침습형 제품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BCI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화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 상반기 BCI 기업에 대한 투자는 60건 이상, 투자액은 70억 위안(한화 약 1.5조 원)을 넘어 지난해 연간 실적을 크게 상회
 - 연초 BrainCo(强脑科技)가 20억 위안(약 4,218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Arfysica Innovation(术理创新), 즌란테크(智冉科技), StairMed(阶梯医疗), Mindtrix(明视脑机) 등도 잇달아 수억 위안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자료원 : 경제참고보

5 상반기 자동차 산업 순이익 20% 가까이 감소

- 상반기 중국의 자동차 산업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며 기업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됨.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의 상반기 매출은 5조 1,893억 위안(한화 약 1,095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했으나 이윤 총액은 1,953억 위안(약 41조 원)으로 19.5% 감소
 -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시장 경쟁 심화 등을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
 - 메모리 반도체, 산업용 금속, 탄산리튬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자동차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해 매출 증가율을 상회
 - 배터리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는 배터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동력 배터리 내재화가 향후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평가

- 또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치열한 가격 경쟁에 따른 판촉비 증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증가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밝힘
-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신에너지차 핵심 부품인 동력 배터리 기업들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완성차 업체와의 실적 격차가 확대됨
- 베이치란구(北汽蓝谷), 광저우자동차그룹(广汽集团), 세레스(赛力斯), 장화이자동차(江淮汽车)는 적자를 기록하거나 적자 전환을 예고했으며, 창청자동차(长城汽车)와 창안자동차(长安汽车)의 순이익도 각각 60.0%, 57.0%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와 반면 CATL(宁德时代)은 순이익이 4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VE에너지(亿纬锂能), 고선테크(国轩高科) 역시 두 자릿수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자동차공업협회 천스화(陈士华) 부비서장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도 여전히 두드러져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제 정세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자료원 : 경제참고보

6 반도체 상장기업 상반기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 자본시장 분석업체인 통화순(同花顺)에 따르면 7월 27일 12시 기준, 증권사 선인완궈(申银万国)의 분류 기준 A주 시장에서 반도체 상장사 55개 사가 상반기 예상 실적을 공시
- 이 중 흑자 전환 14개 사, 순이익 증가 27개 사, 순이익 소폭 증가 5개 사로 46개 사(83.6%)가 실적 개선을 전망.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인 회복세로 AI 반도체, 첨단제조 수요 확대 등이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음을 시사
- 선전장보롱전자(江波龙电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622배 이상 증가, 자오이창신(兆易创新)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순이익이 11배 증가, 아오제테크(翱捷科技)는 셀룰러 베이스밴드 칩과 맞춤형 칩 사업의 성장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
- 실적 개선 기업 46개 사 중 33개 사(71.7%)는 AI·컴퓨팅 수요 증가와 산업 경기 호조를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음
-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출하량 확대로 반도체 산업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마이크로컨트롤러(MCU)도 전자제품, 스마트 가전, 자동차 전자 수요 회복에 따라 출하량 및 가격이 동반 상승
- 증권업계는 시장 흐름이 기대 중심에서 실적 검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2~3년이 중국 산 AI 반도체의 대규모 공급과 수익성 확보를 검증하는 핵심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A주 반도체 분야 일부 상장사 2026년 상반기 실적 예상치〉

No.	회사명	유형	모회사 귀속 순이익 (만 위안)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업종
1	푸란반도체 (普冉股份)	순이익 증가 전망	82,500	1,925.4	디지털 칩 설계
2	푸러더테크 (富乐德)	순이익 증가 전망	18,185~22,185	58.6~93.5	반도체 장비
3	중웨이반도체 (中微半导)	순이익 증가 전망	16,500	90.8	디지털 칩 설계
4	위안제테크 (源杰科技)	순이익 증가 전망	60,000~65,000	1,196.9~1,305.0	개별 소자
5	푸창정미 (富创精密)	순이익 증가 전망	12,000~15,000	877.5~1,121.9	반도체 장비
6	싱천테크 (星宸科技)	순이익 증가 전망	82,000~90,000	583.7~650.4	디지털 칩 설계
7	하이광정보 (海光信息)	순이익 증가 전망	170,000~183,000	41.5~52.3	디지털 칩 설계
8	란치테크 (澜起科技)	순이익 증가 전망	190,000~210,000	63.9~81.2	디지털 칩 설계
9	스란웨이 (士兰微)	순이익 증가 전망	51,912	96.1	개별 소자
10	창덴커지 (长电科技)	순이익 증가 전망	77,000~95,000	63.5~101.7	IC 패키징·테스트

자료원 : 경제참고보

7 中, 상반기 지역별 GDP 실적 발표

- 최근 중국 31개 성(省)에서 상반기 경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15개 성의 GDP 증가율이 전국 평균(4.7%)을 상회
 - GDP 기준 상위 10대 지역은 광둥, 장쑤, 산둥, 저장, 쓰촨, 허난, 후베이, 푸젠, 상하이, 안후이이며 10대 지역의 GDP는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안후이성은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GDP 기준 전국 10위권에 재진입
 - 지역별 성장동력은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산업에 집중, 저장성은 반도체와 서비스 로봇 생산량이 급증했고 장쑤성은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판매액이 각각 27.9%, 90.9%, 317.6% 증가
 - 상무부에 따르면 상반기 최종소비지출은 GDP 성장률을 2.1%p 끌어올리며 경제성장의 가장 큰 견인 요인으로 작용. 하반기에도 각 지방정부는 내수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
 - 허난성은 자동차·가전·전자제품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장쑤성과 후베이성은 소비환경 개선과 신소비 분야 육성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밝힘
 - 전문가들은 하반기 지방정부는 유효 수요 확대, 산업 성장세 유지, 리스크 해소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특히 신인프라·민생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AI 에이전트·임바디드 AI 등 신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동산과 지방부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주택 매입, 도시재생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2026년 상반기 중국 지역별 소매판매·산업 부가가치·수출입 증감률 통계〉

순위	GDP			소매판매		산업 부가가치		수출입	
	지역	금액 (억 위안)	증가율 (%)	지역	증감률 (%)	지역	증감률 (%)	지역	증감률 (%)
1	광둥	72,281	4.5	구이저우	4.5	시장	20.9	산시(陝西)	93.7
2	장쑤	70,387	5.2	허베이	4.1	안후이	12.4	하이난	59.9
3	산둥	53,173	5.6	시장	3.6	칭하이	9.6	안후이	34.3
4	저장	47,937	5.7	저장	3.0	후베이	8.9	허베이	33.2
5	쓰촨	33,629	4.8	장시	2.9	허난	8.1	충칭	31.9
6	허난	33,522	5.0	허난	2.7	저장	8.0	네이멍구	29.3
7	후베이	31,337	5.0	산둥	2.7	신장	7.9	허난	26.0
8	푸젠	29,316	4.0	충칭	2.3	닝샤	7.5	닝샤	25.4
9	상하이	27,887	5.6	텐진	2.1	산둥	7.0	지린	25.2
10	안후이	27,370	5.6	쓰촨	2.0	간쑤	6.7	장쑤	23.9
11	후난	27,034	2.7	지린	1.6	장쑤	6.7	광둥	20.8
12	베이징	26,412	5.4	안후이	1.6	네이멍구	6.6	상하이	18.6
13	허베이	24,207	4.8	푸젠	1.6	쓰촨	6.4	장시	18.5
14	장시	18,038	4.0	후베이	1.5	허베이	6.1	베이징	16.5
15	산시(陝西)	17,533	3.8	칭하이	1.3	푸젠	5.9	윈난	12.8
16	충칭	16,702	4.2	네이멍구	1.3	광둥	5.8	후난	12.7
17	랴오닝	16,227	2.5	광둥	1.3	상하이	5.7	간쑤	10.1
18	윈난	16,217	2.5	간쑤	1.1	구이저우	5.5	저장	8.6
19	광시	14,506	3.5	산시(陝西)	1.1	산시(陝西)	4.9	랴오닝	5.8
20	네이멍구	12,810	4.5	장쑤	0.9	광시	4.8	산둥	4.4
21	구이저우	11,990	4.0	상하이	0.7	텐진	4.4	텐진	2.4
22	산시(山西)	11,747	2.1	닝샤	0.6	충칭	4.1	산시(山西)	△0.2
23	신장	10,314	3.7	광시	△0.1	장시	3.8	쓰촨	△2.4
24	텐진	9,138	4.8	헤이룽장	△0.7	베이징	3.4	구이저우	△4.2
25	헤이룽장	7,390	3.5	후난	△1.2	후난	2.6	신장	△4.6
26	지린	6,979	2.4	신장	△1.2	헤이룽장	1.7	후베이	△6.7
27	간쑤	6,959	4.9	랴오닝	△1.8	윈난	0.7	헤이룽장	△7.2
28	하이난	3,813	2.0	산시(山西)	△2.1	산시(山西)	△0.2	푸젠	△8.2
29	닝샤	2,819	4.9	베이징	△2.2	하이난	△0.2	광둥	△9.4
30	칭하이	2,068	5.0	윈난	△2.2	랴오닝	△0.7	시장	△9.7
31	시장	1,556	6.3	하이난	△9.1	지린	△1.2	칭하이	△11.3

자료원 : 경제참고보, 중국매일경제망

8 中, 세계 최초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출시

-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 산하 누비아(Nubia) 브랜드는 AI 에이전트(AI Agent) 스마트폰 신제품을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2026, 7/17~20)'에서 최초 공개. 7월 16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더우바오(豆包) 2세대 AI 스마트폰'의 후면 디자인을 선공개함
- 신제품은 블랙·핑크·화이트·블루 등 4가지 색상이며, 일부 모델에는 AI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오렌지 색상의 AI 전용 버튼을 탑재



□ 누비아 AI 에이전트(AI Agent) 스마트폰 특징

- 자연어 이해 : 자연스러운 대화와 모호한 의도까지 이해하여 사용자가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됨
- 자율 업무 수행 : 단순히 앱을 실행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앱을 연동하여 하나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
- 사용자 기억 : 사용자의 선호도와 이용 습관을 학습·기억하여 사용할수록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보안 강화 : 온디바이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단말기 내에서 처리하며, 결제·금융 등 민감한 작업은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쳐 수행

□ 주요 기능 :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해 복합적인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

- 멀티 플랫폼 가격 비교 및 구매 : 메이탄·어러머·징둥 등 여러 플랫폼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쿠폰을 적용한 후 최저가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 직전 단계까지 수행
- 여행 일정 자동 계획 : 출장 일정을 제시하면 항공권 검색 및 예약, 호텔 추천·예약, 일정 등록, 날씨 확인 및 준비물 안내까지 자동 수행
- 회의록 자동 작성 :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음성 인식하여 발언자를 구분한 회의록을 생성하며, 문서나 자료를 촬영하면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메모를 자동 생성
- 사진 편집 및 공유 : 업무 사진을 자동 선별·보정한 후 지정된 메신저나 SNS에 공유하는 작업까지 일괄 수행
- 자연스러운 음성 인터페이스 : 별도의 호출어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 명령 수행
- 백그라운드 작업 지원 : AI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영상 시청이나 채팅 등 다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완료 시 결과만 안내받는 멀티태스킹 환경 제공

- 특히 '세계 최초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공식 발표 이전부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제품 출시를 공식 발표한 당일 회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AI 스마트 단말기 출하량은 1억 대를 돌파했고 2026년에는 AI 스마트폰 및 PC의 판매량이 비(非) AI 제품을 넘어설 전망

자료원 : 베이징상보, ZAKER, 제1재경